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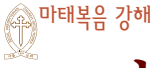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레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마음이 따뜻한 제자 다대오

(마 10:2-4)

Thaddaeus, the Disciple who is Warm Hearted

(Matt. 10:2-4)

1. 그의 이름

다대오의 본래 이름은 유다였는데 누가는 그의 이름을 '야고보의 아들 유다'(눅 6:16)로, 마태와 마가는 아예 이름을 바꿔서 그를 '다대오'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대오는 '가슴,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다대오를 유다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가롯인이 아닌 유다'라고 확실하게 가롯 유다와 구별했습니다(요 14:22).

사실 유다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 이후 사람들은 그 이름을 회피하였습니다. 다대오는 그 이름의 뜻처럼 분명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사랑과 열정으로 넘쳐났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His name

The original name of Thaddaeus was Judah. Luke called his name 'the son of James (Luke 6:16). Matthew and Mark changed his name and already called him 'Thaddaeus, which means 'breast, or mind'. While, though John called him Judah, John clearly distinguished Thaddaeus "who was not Judas Iscariot but Judah" from Judas Iscariot(John14:22).

In fact, although the name of Judah was a good name, since Judas, people avoided it. Thaddaeus was really a generous and gentle disciple whose love and passion overflowed like the meaning of his name.

2. His mission

It appears In John 14, when Jesus said, "I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Thaddaeus asked Him, "Lord, why do you intend to show yourself to us and not to the world?" (John 14:22).

Thaddaeus who was warm hearted and enthusiastic for the Gospel wanted to spread Jesus love and power to all over the world and had a very passionate mind in order to save more people.

3. His death

The Bible says nothing about Judah, Thaddaeus' mission and death. However, according to history, he went to Syria with the small James. After he left there, it is known that he went to Turkey and Iraq across Euphrates and preached the Gospel. In Syria, during his continuous preaching the Gospel, he died a martyr by the sword. He praised the Lord until he died a martyr.

4. The lesson that he left

Thaddaeus did not have any power and tremendous achievement. Nevertheless, the reason why Jesus took him as His disciple was that he always saw a bright side. Moreover, he thoroughly lived his selfless life, and he always was full of praise and thanks.

2. 그의 사역

요 14장을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다대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요 14:22)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다대오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알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는 뜨거운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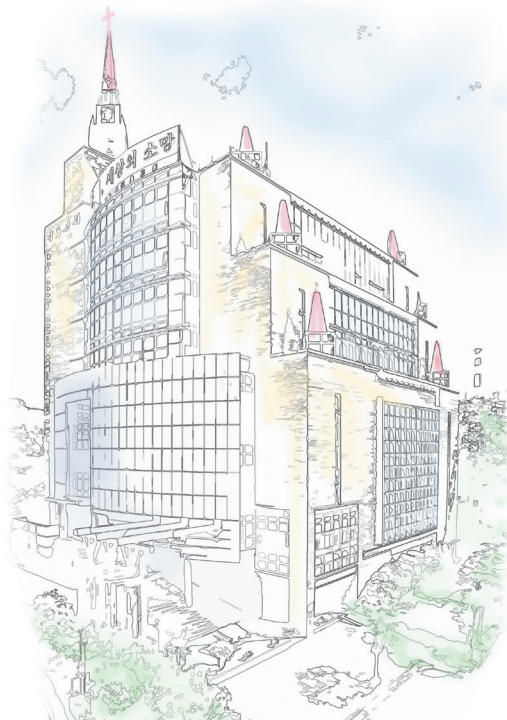
3. 그의 죽음

성경은 유다 다대오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작은 야고보와 같이 시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 유브라테 강을 넘어 터키, 이라크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 하다가 그곳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4. 그가 남긴 교훈

다대오에게는 특별한 능력도 굉장한 업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택하신 것은 그가 밝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교의 길을 따뜻한 마음으로 긍정과 밝음을 잃지 않았던 유다 다대오처럼 늘 하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Just like Judah, Thaddaeus who never lost his warm, positive, and bright mind until he died a martyr with his difficulty and suffering, by having the victory under the light of heaven's glory,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

오늘은 제496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이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교회 정문에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라는 제하의 95개 조항의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은 시작되었다.

나 각종 이단 종파들이 발생하여 정통교회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교회의 장자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장로교회도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어 그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개혁과 연합에 힘써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

2014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 11월10일(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4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 후보 삼지로 제공된 봉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10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 다시 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 모임 11월 1일(금) 오후 5시30분

종교개혁500주년 기념사업회(대표회장 이종운 목사)가 학술프로젝트, 학술대회(년2회), 종교개혁 신학 관련 연구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마련 모임을 오는 11월 1일(금) 오후 5시 30분 광진구 광장

동 소재 현대 리버빌 문화센터에서 갖는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기도 바란다. 문의처 010-2943-2915(박진희 권사)

살리닷, 치료위해 입국

10월24일(목) 입국 /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치료예정

우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살리닷이 지난 10월24일(목)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왔다.

살리닷은 지난 순례자에 소개 된 바와 같이 전신 화상을 입어 도저히 현지에서 치료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교회 2013년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팀과의 만남으로 인해 딱한 사정이 소개되고 우리교회는 베델하우스에서 살리닷을 돕기 위한 모금 공연을 가진 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모금한 귀중

한 기금으로 이번에 살리닷을 초청하여 치료를 하게 된 것이다.

살리닷은 이번 주일(10월27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담임목사의 소개와 기도를 받은 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4~5차례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첫 수술은 10월29일-화-예정)

성도들의 계속된 기도와 사랑으로 하루 속히 살리닷이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14학년도 대입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7일(목) 08:40 ~ 17:00 웨스트민스터홀

2014학년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11월7일(목)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수험시간에 맞춰 교역자의 인도로 찬양, 말씀, 간증 및 기도회로 진행되며 공동

기도 제목 및 과목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다.

이번 기도회는 고등부(지도 천세종 목사, 부장 차영도 집사) 교사들이 봉사하며 함께 기도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10월 학습, 세례자 명단

2013년 10월 20일(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 세례/입교/개종/학습/유아세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세례자>
김일병, 김종구, 석동희, 박은영, 이혜진, 장영희, 정임숙
계 7명

<입교자>
서송희, 이강석, 이정현, 최선진, 채민정
계 5명

<개종자>
이미진, 홍정숙
계 2명

<학습자>
김창수, 김남희, 문정희, 박지명, 송은아, 서정희, 서중렬, 송재윤, 임현숙, 이명현, 이지혜, 양효단, 양리인, 장양화
계 14명

<유아세례자>
마효주, 박서형, 박현주, 윤주아, 이수아
계 5명
총 33명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8)

(문 107) 열왕기하2:23-24에는 엘리사의 대머리를 조롱하던 아이들 중 42명이 엘리사의 저주를 받아 암곰들에게 찢기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같은 작은 일에 백성을 저주할 수 있었던가요?

(답) 사실 본문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어린이들의 장난기 어린 놀림이 아니라 심각한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갱단이나 방랑자 같은 사회의 심각한 위험 분자들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량배들이 오륙십 명씩 궤거리를 짓고 다니면서 존경받는 어른들을 우롱하거나 잘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한다면 이스라엘 왕국의 종교행위에 커다란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반란행위를 묵과하는 것이 됨으로 오히려 악을 조장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초전에 막게 하시려고 엘리사의 입을 통해 저주케 함으로 42명의 아이들이 숲 속에 있던 암곰들에게 찢기어 죽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 자신이 어떤 저주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벌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갱단의 행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 있는 말씀을 받은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합의 아들 여호람왕까지도 엘리사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했습니다.(왕하3:11-13)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대한 모독은 곧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42명은 그 아이들 전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다 많은 아이들이 그 조롱하는 일에 가담했으나 42명이 주동적이었다고 추측됩니다. (다음 주 계속)

새벽기도회 음향봉사자 모집

우리교회 새벽기도회 시간에 음향봉사할 성도 여러분을 찾고 있다.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며 음향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 후 식사시간이 11시 10분에서 11시로 변경된다.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갱신

앞으로 4년후 즉 2017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신앙 유산을 이어 받아 세계 교회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전적 문제들을 노출함과 동시에 신학적으로도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중윤 원로목사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직시하며,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신학 그리고 성경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엄중한 시대적 요청 앞에서 있다.

이러한 절박한 한국교회의 오늘의 상황 인식을 공유한 한국의 중요한 7개 신학회가 2011년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약1,500명의 국내 기독교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신앙과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할 것을 다짐했다. 그들은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그루터기가 되어 구약의 예언자직과 신약의 사도직분을 바르게 실현함으로 성경적 교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교회 갱신의 횃불을 올릴 것을 다짐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투철한 연합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한 몸을 이루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과 세계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을 선언했다.

그들은 2011년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한국기독교목회자 윤리실천 강령을 발표하고 종교개혁 신학 명저 번역사업, 학술프로젝트, 학술대회(년2회), 종교개혁 신학 관련 연구 네트워크 및 신학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등을 사업계획으로 발표 실천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말기암환자로 비유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급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러던 것이 90년 초반부터 정체 또는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2006년도 종교인구 조사에서 기독교가 한국의 3대 종교로 알려진 불교, 천주교 중에서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총회에 보고된 본 교단 전체 교인수가 전년대비 41,596명 감소했으며, 유치부와 유년부도 약 2천명이 감소되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으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교회)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되게 한 것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말기암 환자처럼 소생 불가능해진 한국교회의 죽어가는 모습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 일의 해법을 몇몇 신학자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한국교회가 관심을 모으고 이 일에 기도와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13 사명자기도

빈손의 사명자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시어 오직 말씀만이 영원함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약하고 소외 된 작은 자들의 벗이 되어 그들을 섬기길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명 감당함에 우리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깨달았을때 8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명받은 것 같이 우리도 빈손의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피 묻은 두 손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그네 인생 길에서 허물어질 세상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지금도 하나님께 애소하는 우리의 동족을 향하여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아픈마음 갖게 하사 저들의 친구 되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한싸움 다마치고 주님 앞에서는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서울교회 사명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김준목 집사 (9교구)

사명자대회 - 24시간 릴레이기도

기도의 등불을 높이 들고



이부자 권사 (9교구)

2013년 사명자대회 첫 월요일을 기다리며 교회에서 잠자리에 누워 문득 교회설립 때가 생각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던 시절, 의자도 없이 바다에서 예배를 드리며 장로님들의 헌신과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눈물로 치마 앞에 꽃을 그리며 밤을 새웠던 그 때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울리어져 성도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교회학교, 찬양대, 예배위원, 교구,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세워지고 설립 50일 앞두고 시작한 사명자대회!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장로님, 권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권사님, 존경합니다. 그 날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없었던들 과연 10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서로 부둥켜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낮엔 모든 성도들이 청소하고 밤이면 불침번을 기쁨으로 섰던 그 시절!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사명자대회에서 영아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사명자로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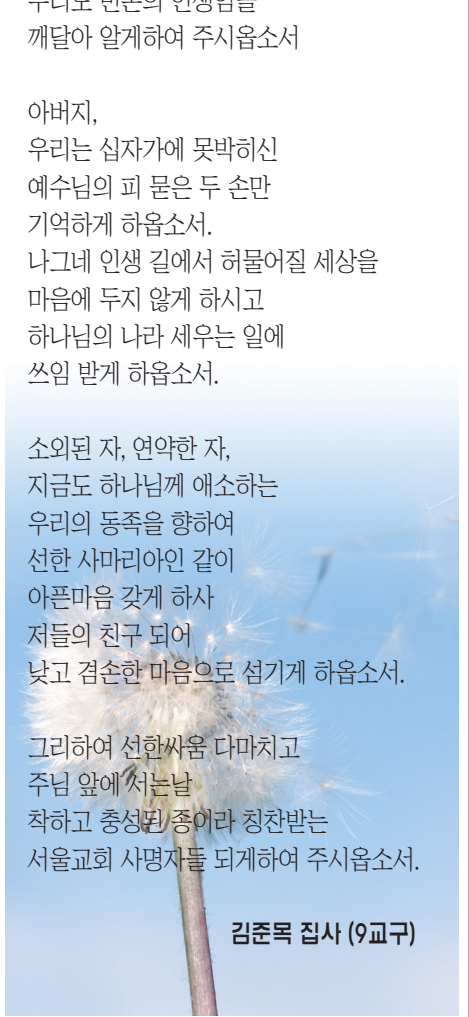


늦은 시간에도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권사님들

실의 계절, 기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위해 교회에서는 커피, 녹차 등을 104호실에 준비하고 있으며 심야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따뜻한 잠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VIP새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띠, 승리의 잔을 높이 들고 모두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갑시다.

전인하 권사님의 깨끗한 빌딩에서 첫 감사예배 드린지 어언 2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노구를 이끄시고 교회로 나와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권사님, 기도로 교회를 지켰던 우리 권사님들 모두 2013사명자대회를 통해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살리당을 부탁해!

박재원 성도 (청년부)

재 원: 예수님, 살리당이 한국에 왔고 해요. 그러고 보니 음악회가 벌써 한 달 전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예수님: 그러게 말이다. 시간이 참 빠르지? 그래. 재원아, 넌 음악회를 준비하는 동안 무얼 느꼈니?

재 원: 먼저 이렇게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뻐요. 함께 준비했던 청년부 지체들 모두 자랑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각자 다른 말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나도 너희들 모두를 다 지켜봤다. 정말 수고 많았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수고 내가 다 보고 있으니 언제나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더욱 기대하길 바란다.

재 원: 네, 꼭 기대하며 기도할게요!!
예수님: 이제 살리당이 한국에 왔으니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구나. 너희가 음악회를 준비했던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해.

재 원: 저기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살리당의 일이 작은 씨앗이 되어 카자흐스탄에 복음이 널리 퍼지길 원해요. 하지만 이후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해요.

예수님: 내게 기도하기를 잊지 마아라. 언젠가 카자흐스탄에도 복음의 빛이 가득하게 될 거야.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땅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해. 그리고 살리당에게 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더욱 애써 주겠니?

재 원: 네! 먼저 살리당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그 모든 일들이 순

조롭게 이뤄지도록 기도할게요, 예수님. 또 살리당이 회복되고 나면 함께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함께 찾아 보고 음악회도 가려고 해요. 살리당은 노래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좋은 생각이다. 단,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힘이 들거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재 원: 그럼요! 명심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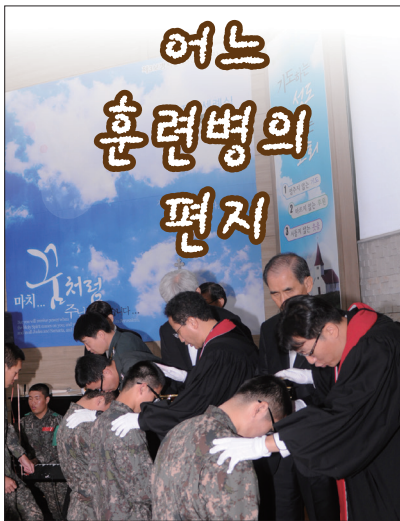
예수님: 그럼, 살리당을 부탁한다.



지난 24일(목)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살리당. 이제 많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 정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5일 진중세례식에 참석한 3사단 신병교육대 00번 훈련병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까지 하며 중.고등학교 초반까지는 교회학교에서 임역원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옆친대 댈친 격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안 계셔서 저는 빛나간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피하고자 집을 나와 살았습니다.



회에서 들은 말씀은 시편 1편 1-6절, '복있는 사람의 길, 죄악의 삶을 끊는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나를 위한 설교인가?'라고 잠깐 생각했을뿐, 아직은 깨닫지 못했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간 교회에서 예배소서 5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음으로만 '척'하지 않고 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주님께 먹칠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사회에서 친구들과 신앙이야기가 나오면, "나 모태신앙이야"라고 말하며 왠지 모를 자존심으로 저를 포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걸음으로만 기독교인이었을 뿐, 교회는 여전히 멀리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런 탓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하던 어지러운 생활을 다시 한 번 회피하려고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중병 덕분에 의무적 종교활동으로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세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설명에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말에 무심코 세례를 신청하였고,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억들, 사회에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하지 말아야 했던 생각과 말들이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쓰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며 솔직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밤 용기를 내어 기도드리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소만 알고 있던 어머니에게도 3년 만에 편지를 보내볼까 합니다.

사실 예배순서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기억납니다. 이상하게 눈물을 흘리며 들어간 교

우연치 않은 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월28일(월) 세이브앤케이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4개분야 종합세미나(Final)포럼에 참여한다. 10월28일(월) 서울역동일광장기도회에서 설교한다. 10월29일(화) 제13회 군선교신학회 심포지움에서 주제강의한다. 10월30일(수)-11월1일(금)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참석한다. 11월1일(금)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기념마련 만찬회를 주관한다. 11월2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건기도회 설교, 울림바타르대학교 이사회 설교한다.
- 전사회: 오영숙 권사(12교구) 수채화전 "꽃들의 만남", 10.31(목) 오후 5시 - 11.6(수), 채움갤러리(포곡도서관 3층)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278번길 8(삼계리 556-2) 031-324-4631~2

- 주간식당봉사: 이삭선교회(10.27) 루디아전도회(11.3)
- 금주의 식사: 김도영 장로 박계진 전사 가정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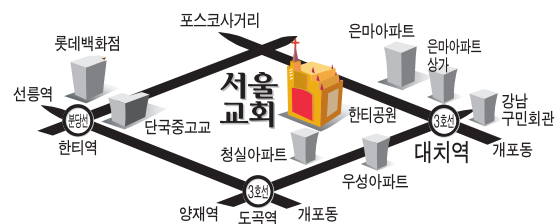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종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교회가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진정한 개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우리교회 1인 1사역의 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봉사과 전도에 동참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3. 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한 살리당의 모든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며 이번 일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에 복음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양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